

레인콤

## 아이디어로 MP3P 세계대전 주도

전략제품 'U10' 공개... '01년 '아이리버' 로 명가진입



양덕준 레인콤 대표

국내 MP3P 시장은 신제품들의 대거 등장으로 뜨겁다.

올림푸스·엠펙오·코원시스템·현원 등이 신제품을 쏟아내고 있고, 여기에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소니·애플 등이 저가의 MP3P를 출시해 업체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국내 MP3P 제품을 복제해 무섭게 성장하는 중국 업체들의 기세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

이제 MP3P는 성능과 디자인으로 승부하던 시대를 벗어나 혁신적인 기능으로 발전해야 살아남을 수 있게 됐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레인콤이 야심차게 공개한 'U10'은 치열한 MP3P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자, 그동안 아이리버의 혁신을 고대해왔던 고객들에게 확실한 각인을 새겨준 첨단 병기이다.

레인콤이 1999년 사업 초기에 취급하던 종목은 반도체 솔루션.

2001년 아이리버(iriver) 브랜드로 시장에 진출한 레인콤은 현재 국내 MP3P시장의 50%, 미국 플래시 메모리타입 MP3P시장의 20% 가까운 시장 장악력을 확보하며 세계 시장 점유율 2위를 달리는 회사로 성장했다.

레인콤은 그동안 독특하고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휴대용 디지털 기기 업계 주목과 함께 시장에서의 성공을 거두어 왔다. 또한 현재 MP3P업계에서 관행이 되다시피 한 펌웨어 업그레이드(인터넷으로 이미 구입한 제품의 성능을 향상시켜주는 방식)를 최초로 도입하기도 했다.

또 전국 9개와 해외에 아이리버존을 운영해 우수 A/S기업으로 거듭났으며, 2005년엔 중국 '동관시'에 연 800만대 생산 규모의 자사공장과 판매법인을 설립해 1700여명의 중국공장 근로자와 함께 제품의 생산 효율성과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한편 자회사인 유리온의 펀케익([www.funcake.com](http://www.funcake.com))사이트를 통해 유명가수들의 곡을 발표, 고객들에게 다양한 컨텐츠도 제공하고 있다.

##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승부한다

아이리버의 주력제품은 MP3P, 그 중에서도 플래시 메모리타입 제품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레인콤이 내놓은 첫번째 플래시메모리타입 MP3P는 프리즘이란 닉네임이 붙었던 'IFP-100'. 삼각기둥 형태의 독특하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1999년 직원 7명과 자본금 3억원으로 창업된 MP3P 전문업체 레인콤. 현재 임직원은 100배인 700여명으로 늘었고, 매출은 2004년 기준으로 매출액 4540억원을 달성했다. 계열사 4개와 홍콩, 미국 등 해외법인 5개 및, 상하이와 런던에 해외사무소를 두고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중이다. 작은 벤처기업이 MP3P시장의 신화를 만들며,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 MP3P를 선도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꾸준히 내놓았기에 가능했다. 최근 신제품 'U10'을 내놓으며 초심으로 돌아간 레인콤을 소개한다.

MP3P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찬사를 받았다.

이후 레인콤은 우주선 모양의 획기적인 디자인과 우수한 성능으로 순식간에 누리꾼들의 입소문에 오르면서 최고의 판매고를 기록한 '크래프트 (iFP-300)'를 내놓게 된다.

또 목걸이형인 N10, T 시리즈 (T10, T20, T30)도 레인콤의 히트작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레인콤의 MP3P들이 성공적인 판매고를 올리는 것은 무엇보다 얼리어답터의 철저한 평가와 누리꾼들의 입소문 영향이 크다. 최근에 내놓은 'U10'은 MP3P를 만들었던 처음으로 돌아가(U-turn) 개념부터 다시 생각하자는 의미로 만들었다.

'U10'은 기기 전면부에 조그 스위치나 버튼을 과감히 없애고, 엄지로 모든 것을 제어하는 TFT-LCD 화면이 컨트롤 키 구실을 한다. 매크로미디어 플래시 라이트가 적용된 'U10'은 기존의 디스플레이 개념을 탈피, 일반 터치스크린 방식과 다른 다이렉트 클릭 방식(iriver D-Click)을 사용한다.

이 방식은 LCD 화면의 상하좌우 가장자리 네 부분을 엄지손가락 등으로 누르면 화면 자체가 밑으로 눌리면서 버튼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일반적인 터치스크린과 달리 오작동의 우려를 없앴으며 버튼을 누르는 느낌을 그대로 살려냈다. 또한 게임 및 동영상 재생 기능도 가능해, MP3P로는 처음 매크로미디어 플래시 콘텐츠 다운로드 및 재생할 수 있다. 게임·알람·FM라디오 수신뿐만 아니라 리모컨을 통해 먼 곳에서도 조작성이 가능한 점도 'U10'의 참신한 아이디어.



레인콤의 전략제품 'U10'

### MP3P 뛰어넘어 신규 사업으로 도전

최근 레인콤은 위성 DMB 단말기를 비롯해 휴대형 게임기 시장진출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MP3P의 시장포화, PMP의 둔한 성장세 등으로 인해 신규사업에 목말라했던 레인콤은 그동안 휴대폰을 포함한 다각적인 사업 계획을 잡은 바 있다.

특히 휴대형 게임기를 선택한 이유는

레인콤이 PMP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 PMP 인터페이스에 그래픽 가속칩과 3D엔진을 얹으면 휴대형 게임기가 탄생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 분야와 관련이 없었던 레인콤은 신규사업에 뛰어들기 위해 안팎으로 준비 중이다. 국내외 모바일 3D 관련업체들이 집합돼 있는 '모바일 3D 표준화 포럼'에 레인콤의 양덕준 사장이 2대 의장으로 선출된 것도 신규 사업에 참여하려는 고도의 마케팅 전략으로 볼 수 있다.

### 초심으로 돌아가 창조와 혁신으로 무장

레인콤은 올해 매출액 목표를 작년 4540억원에서 16.4% 증가한 5283억원으로 잡았다. 현재 레인콤은 CD 타입과 플래시 하드 타입의 MP3P 3종, PMP, 전자사전 등 총 5종의 제품을 생산 중이다. 레인콤의 양덕준 대표는 "미국시장에선 MP3P가 '애플과 나머지 MP3P'로 구분될 만큼 애플의 브랜드 파워가 강하다"며, "이를 '아이리버와 애플, 그리고 다른 나머지들'로 인식시킨다는 계획 아래 브랜드 가치를 키우는데 주력할 계획"이라 말했다. 이는 창조와 혁신 정신으로 무장해 고객을 만드는 마음으로 새로운 제품을 내놓겠다는 의지인 셈. **K**

글 | 임일곤 기자(아이티타임스)